

性命으로 본 精과 神

朴載元·姜政秀*

Abstract

Mind and Spirit Seen by Human Nature and Life

Park Jae-won O.M.D., Kang Jung-soo O.M.D., Ph.D.

Dept of Oriental Medicine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Human nature, life, mind and spirit have very important meanings for Oriental medical science. This is because understanding human mind and spirit not only makes treatment of people easier and more accessible but also provides us a clue for finding out something we lost. As a consequence of investigating various classic books by ancient medical practitioners and Taoist scholars s as follows:

1. Mind and spirit were valued very highly in Oriental medical science, and this can be found in classic books like <Whangje-naegam>, <Nankyong>, <An introduction to medical science>, and <Dongyeui-bogam>.
2. To cure people, acquirement of detailed knowledge of mind and spirit should be preceded.
3. The Taoist school regarded mind, spirit, human nature and life as critical agents of health care and perceived that they were indispensable for going back to The Great Emptiness(Nothingness before the First Cause), the ultimate goal of Taoist learning.
4. Although human nature, life, mind and spirit have different names and different users, it is like theory and practice and we can see that ancient sages used them all in the same context of natural law.

I. 緒論

精과 神은 그 동안 많은 賢인들이 풀기 위하여 고민했던 東洋哲學의 命題이다. 醫家들은 精과 神이 인체의 몸에서 매우 중요하였기에 醫學的인 觀點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였고 學者들은 역시

그들의 觀點에서 精과 神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宗教人들도 역시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

東洋醫學의 뿌리는 精과 神에 있다. 이는 인간이 精과 神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東洋醫學의 뿌리는 그 본 바탕이 東洋哲學에 있다. 그리고 東洋哲學은 宇宙의 生成과 變化象을 표시한 河圖와 洛書에서 그 起源을 찾을 수 있다. 그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리하여 《醫學入門·先天圖說》에서는 “學易以後，可以言醫，非學乎劃也，學乎爻也。”¹⁾라 하여 醫學의 入門은 易을 비롯한 東洋哲學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造物主가 天地를 만들고 나서부터 萬象이 출하였으며 우리 인간도 역시 그 中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른 禽獸가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으니 이는 天地의 法度를 알아 天地가 나뉘기 以前의 무어라 할 수 없는 根本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能力이다. 上古時代의 인간들의 삶에 대하여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美其食，任其服，樂其俗，高下不相慕，其民故曰朴。是以其慾不能勞其目，淫事不能惑其心，愚智賢不肖，不懼于物，故合于道。”²⁾라 하여 上古時代에서 天地의 德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世代가 變遷하면서 점점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天地와 合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天地와 자신을 나누고 작게는 나와 너를 나누는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 마음속의 精과 神은 영원히 나뉘어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輪廻의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金剛般若波羅密經》에서 “須菩提，若菩薩，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卽非菩薩。”이라 하신 것이다³⁾. 佛家나 道家에서 모두 精과 神을 중요시하였는데 佛家에서는 이를 戒，定，慧라고 하고 道家에서는 性과 命이라 하였을 뿐，이름만 달리 불렀을 따름이다. 이처럼 精과 神을 중요시한 이유는 精과 神을 이해해야지만 精과 神이 나뉘어지기 以前의 根本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열쇠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精과 神이 醫學의으로 어떻게 이해되는지 그리고 道家와 佛家の 여러 經典에서는 精과 神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本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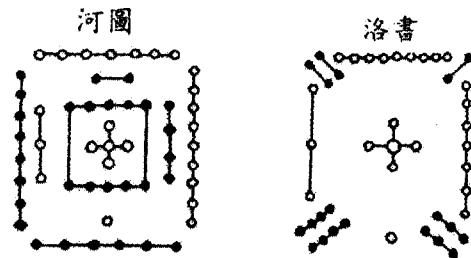
1. 性과 命의 正義

性과 命에 대하여 《中庸》에서는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修道之謂教”라고 하였다⁴⁾. 즉，하늘이 나에게 命한 것을 ‘性’이라 하고 이 ‘性’을 따르는 것을 ‘道’라고 하며 이 ‘道’를 닦는 것을 ‘教’라고 한다는 것이다. 中世 儒敎를 復興시킨 朱子는 그의 《四書集注》에서 性이란 사람의 本性을 말하는 것이니 곧 ‘理’인 것이요， 命이란 하늘이 命한 것으로 先天의으로 타고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性命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中庸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論語·雍也編》에서는 “子曰，中庸之謂德也，其至宜乎！民鮮久矣。”라 하여 孔子께서도 中庸의 德이야말로 우리의 根本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性과 命을 닦는 열쇠가 된다고 하신 것이다⁵⁾.

性이란 우리 人間의 本性으로 우리의 마음 저편의 그 무엇이다. 情과는 다른 것이다. 命이란 하늘이 우리에게 命한 것을 말하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性이 무엇이고 命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道이며 그 道를 닦는 것이 修道인 것이다. 그리하다 보면 왜 내가 이러한 性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命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人間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이유인 것이다.

東洋哲學의 根源이 되는 河圖와 洛書에서 이러한 性과 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端緒를 찾을 수 있다.

1) 河洛으로 본 性과 命



1) 李挺：《醫學入門》，大星文化社，1980。
2) 一中社：《素問今釋》，p.1。
3) 金剛般若波羅密經，선문출판사，p.16。

4) 金學主：《大學·中庸》，明文堂，p.206。
5) 成百曉：《論語集註》，傳統文化硏究會，p.123。

河圖는 伏羲 皇帝께서 龍馬를 만나서 그의 등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서 만든 것인데 이 그림으로써 大道를 나타내고 陰陽을 정하였으며 五行을 정하고 八卦를 지었으며 이로써 萬象이 생한 이유를 밝히신 것이다.

먼저 先天祖氣인 無極으로 後天元精인 有極을 살피어 한 點의 신령스러운 빛으로 凝結된 것이니 中央과 四方으로 정하여지게 되고 이 中央의 한 點이 四方에 임하여 五行을 만드니 이 點이 바로 太極이 되는 것이다.

無極과 太極에 대하여《參同契闡幽·乾坤門戶編》에서는 “宇宙의 氣運이 나누어지기 以前의 根源으로 돌아가면 一氣조차 조짐이 없어서 무어라 表現할 수 없고 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며 행하니 크게 비어 太虛라 할뿐이며 方位도 없고 體도 없으니 이를 眞空이라 하고 空 가운데 空이 아닌 것을 妙有라 한다.”라고 하였다⁶⁾. 또한 “有로되 空이라고 보게 되면 곧 太極은 無極에 根本한다고 하는 것이며 空이로되 有라고 보게 되면 곧 無極이면서 太極이다라고 하는 것이다.”⁷⁾라고 하였고 朱子는《周易》의 <伏羲八卦次序之道>에서 “太極은 象과 數가 形을 이루지 아니한 상태이나 그 理致(기틀)가 이미 그 속에 갖추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無極이 곧 太極이나 太極은 그 속에 기틀이 숨어 있어서 곧 一陰一陽하고 자 하는 때라는 것이다⁸⁾.

다시 河圖에서는 中央의 太極이 西方을 생하고 다시 西方에서 北方을 생하며 北方에서 東方을 생하고 東方에서 南方을 생하니 이는 中央의 五點이 生化하는 原理를 말하는 것이요, 北方에서 天一生水하니 一은 陽의 시작이나 그 位置가 子에서 생하는 것이므로 하늘의 陽인 一이 北으로 와서 水를 생한다고 하는 것이고 南方에서 地二生火하니 이는 陰의 시작이나 그 位置가 午에서 생하는 것

이므로 땅의 陰인 二가 南으로 와서 火를 생한다고 하는 것이니 나머지는 이를 類推하여 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하여 一, 二, 三, 四, 五의 生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中央의 太極이 변하는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 中央의 五土의 氣를 머금게 되면 天一이 水를 생하여 五土를 얻어서 地六이 되며 地二가 火를 생하여 五土를 얻어서 天七이 되고 天三이 木을 생하여 五土를 얻어서 地八이 되며 地四가 金을 생하여 五土를 얻어서 天九가 되고 天五가 土를 생하여 五土를 얻어서 地十이 되는 것이니 이는 成數를 말하는 것이다. 生數는 바로 太極에서 分化되어 나온 性과 命의 純粹한 상태(理)로 孟子는 이를 두고 中央의 土를 빼고 四端論을 말씀하셨고 成數는 여기에 五土를 머금은 상태이므로 五土란 有形의 形質과도 같아서 變하기가 쉽고 人間의 本性인 生數에 五土를 더하여 그 마음이 이미 本性을 喪失하여 偏狹하여 질 것(機)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⁹⁾.

洛書는 禹王이 治水를 하실 때 洛水에서 神龜가 出하여 그 몸에 새겨진 모습을 기록하신 것이다. 그 모습은 戴九履一, 左三右七, 二四爲肩, 六八爲足, 五點爲腹이다.

河圖가 先天의 生化하는 根本이라면 洛書는 後天의 克制하는 쓰임이 되는 것으로 中央의 열 십자 모양의 土가 北方의 水를 克하고 北方의 水가 南方의 火를 克하며 南方의 火가 西方의 金을 克하며 西方의 金이 東方의 木을 克하고 東方의 木이 中央의 土를 克하게 된다.

洛書는 河圖에 比하여 火와 金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이를 生剋의 關係로써 論하면 南方의 火와 西方의 金은 서로 克하는데 南方의 火가 西方으로 가서 西方의 金을 克하게 되면 金이 火의 辟박을 받아서 南方으로 옮겨오게 되고 東方의 木과 北方의 水는 서로 생하는 관계이므로 東方의 木은 北方의 水와 친한 곳에 있으려하며 北方의 水는 金의 生함을 좋아함으로 東方의 木은 東北에 위치하고 北方의 水는 西北에 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剛柔로써 論하면 金과 火는 매우 剛하고 水와 木

6) 魏伯陽：《參同契闡幽》，麗江出版社，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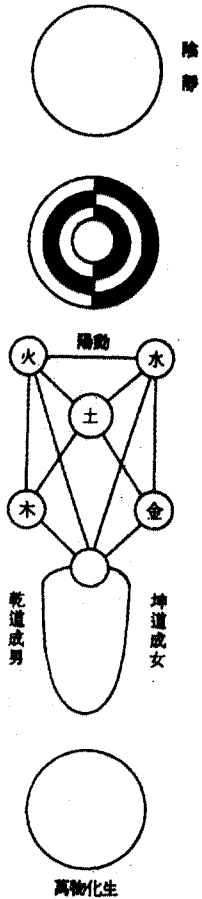
“原夫鴻濛之先，一炁未兆，不可道，亦不可名，廓然太虛，無方無體，是謂眞空，空中不空，是謂妙有。”

7) 魏伯陽：上揭書，p.67.

“即有而空，便是太極無極，即空而有，便是無極而太極。”

8) 周易，保景出版社，p.17.

9) 明道易經，東國大學校 原典研究會，p.36.



은 매우 柔하여 모두 中和의 氣를 얻지 못한 것이니 金성이 강하므로 金을 南方으로 옮겨 金의 剛함을 억제하고 火의 성질은 燥한 것이니 西方으로 옮겨 火의 성질을 억제하며 木의 성질은 본래 부드러운 것인데 東方에 두어 그 성질을 북돋우고 水의 성질은 寒한 것인데 北方에 두어 그 성질을 더욱 寒하게 하였다. 즉 剛한 것(金과 火)은 억제하고 柔한 것(木과 水)은 북돋아 준 것이고 河圖에 있던 中央의 十土는 四方에 두어 더욱 그 中和된 바를 얻게 한 것이다.

이를 象數로 풀어 보면 北方의 一點은 壬水가 되는데 壬水는 辛金에서 生하여 順行하여 子에서 旺하므로 子位에 위치하게 되었고 六點은 癸水가 되는데 癸水는 卯에서 生하여

逆行하여 亥에서 旺하므로 亥位에 위치하게 되었다. 南方의 九點은 庚金에 屬하는데 庚金은 巳火에서 生하여 順行하여 午에서 沐浴이 되는 까닭에 九點이 午位에 居하게 되었다. 즉, 剛한 것은 억제하고 弱한 것은 북돋아 준다는 것이 立證되는 셈이다¹⁰⁾.

河圖는 中央의 太極이 分化하여 陰陽이 되고 다시 陰陽이 分化하여 五行이 되는 理致를 그려 놓은 것으로 이는 太虛에서 性과 命이 나뉘어 萬物을 生하고 다시 合하여 그 太虛로 돌아가는 것이고 洛書는 太虛에서 分化한 性과 命이 變化하는 法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無極圖에서 본 性과 命

이를 道家에서 전해 내려오는 無極圖를 통해 보면 맨 위의 白圓은 無極을 나타내고 그 아래의 圓은 左側은 離卦, 右側은 坎卦가 되어 모두 하나의 圓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 이는 無極이라는 太虛에서 性과 命이 分化하고자 하는 기쁨이 들어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아래는 五行이 나뉘어 木, 火, 土, 金, 水가 變化하니 中央에 土가 있어서 木, 火, 金, 水의 調節者가 되고 그 아래의 圓에서 水와 火에 一直線으로 연결된 것은 無極에서 性과 命으로 나뉘어 짐을 말하며 左側의 '五行化合'은 無極에서 出하여 木, 火, 土로 變함을 말하고 그 線은 위의 坎卦에 연결되니 이는 木, 火, 土의 變함이 바로 坎中의 一陽이 되는 것이고 右側의 '五氣朝元'은 土, 金, 水로 化하여 위의 離卦에 연결되니 이는 土, 金, 水의 化함이 바로 離中의 一陰이 되는 것으로 이를 두고 《參同契闡幽·兩竅互用》에서는 “坤入乾而成離也. 乾入坤而成坎也.”라고 하고 다시 “乾中得此一陰, 性轉爲命. 坤中得此一陽, 命轉爲性.”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아래의 白圓에 水, 火, 土가 모두 直線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를 두고 《參同契闡幽·眞土造化》에서는 “水火二用, 必歸於中土也..... 舉一卽兼兩, 舉兩卽兼三, 會三乃歸一...”이라고 한 것이다. 다시 無極圖로 돌아가서 五行圖 아래의 白圓은 左側에는 ‘神化氣煉’이라 하고 右側에는 ‘氣化精煉’이라 하였으니 이는 無極에서 精, 氣, 神이 出함을 나타내고 이것이 바로 性과 命을 닦아 本源의 無極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 아래의 白圓은 그 아래에 ‘玄牝之門’이라고 하였으니 老子께서 쓰신《道德經》에서는 “谷神不死, 是謂玄牝.”이라 하여 谷神은 지극히 虛하고 지극히 靈하여 그 妙함이 낡고 낡아서 그침이 없는 것으로 그 곳으로 玄과 牝이 갈려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玄牝之門’이니, 이 ‘玄牝之門’으로 性과 命이 나오고 다시 그 門으로 性과 命以前의 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¹¹⁾.

3) 《道德經》에서 본 性과 命

《道德經》은 老子께서 周王室의 어지러움을

10) 東國大學校 原典研究會, 上揭書, p.73.

11) 任法融: 道德經釋義, 麗江出版社, p.50.

보고 벼슬을 그만두고 서쪽으로 가던 길에 威谷關을 지날 때 關領인 尹回의 요청으로 그 자리에서 써 준 道德五千言을 말하는 것이고 이 후에 老子는 160歲에 登仙하였다고 傳해진다¹²⁾.

《道德經》은 크게《道經》37章과《德經》44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道’라함은 하늘의 바른 이치로 땅과 하나가 되어 그 모양도 없고 지극히 텅 비어 神靈한 것이며 ‘德’이라 함은 ‘道’를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니 그릇이란 만물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크게 내용물을 담을 수 있고 비울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안에 든 內容物에 따라서 그 모습을 들어내는 것이므로 ‘道’가 하늘이라면 ‘德’은 땅이 되어 하늘의 ‘道’를 담아 萬物이 사용하게끔 들어내는 것이다.

1章에서는 “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道德經》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집약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¹³⁾. 즉 ‘道’를 ‘道’라고 할 수 있으면 이는 恒常된 ‘道’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지을 수 있으면 恒常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니 《道德經》에서 말하는 ‘道’라는 것은 바로 性과 命이 나뉘어 지기 以前の 虛靈不昧한 것이니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며 무어라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름을 붙이지 않을 수도 없는, 하지만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는 존재이므로 이를 두고 佛家에서는 眞空妙有라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4章에서 “道冲而用之，或似不盈，淵兮，似萬物之宗...”이라 하여 ‘道’를 讚美한 것이다¹⁴⁾. 뿐만 아니라 5章에서는 “天地不仁...”이라 하여 ‘道’란 인간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萬象에 골고루 公平하게 미치는 것이라 하였다¹⁵⁾.

《道德經》에서는 ‘道’라는 존재를 物質的인 形象으로 물에 譬喩하였으니 8章에서는 “上善若水，水善利萬物又不爭，處衆人之所惡，故幾於道.”라 하여 물의 德으로 道의 德을 설명하였다¹⁶⁾.

이러한 ‘道’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性과 命이 나뉘어 이때부터 우리는 生老病死의 因果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 18章에서는 “大道廢，有仁義，智慧出，有大偽，六親不和，有孝者，國家昏亂，有忠臣.”이라 하여 虛無한 ‘道’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에게 人爲적인 假識이 생기면서부터 性과 命이 나뉘어 이러한 悲劇이 나타난다고 한 것이다¹⁷⁾. 그리고 ‘道’를 닦아 다시 性과 命이 나뉘기 以前の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6章에서 “將欲翫之，必固張之，將欲弱之，必固強之，將欲廢之，必固興之，將欲奪之，必固與之，是謂微明.”이라 하였다¹⁸⁾.

이렇게 《道德經》에서 ‘道’를 讚美하고 ‘道’를 譬喩하며 ‘道’를 닦는 方法을 說하신 것은 모두 우리 인간이 性과 命 以前の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곡한 뜻이 숨어 있는 것이다.

4) 《黃庭經》에서 본 性과 命

《黃庭經》은 扶桑大帝君이 暘谷神仙王에게 命하여 魏夫人에게 傳한 것으로 원이름은 《黃庭內經》이라 한다¹⁹⁾.

黃庭에서 黃은 中土의 色이고 土는 四方을 造化하고 支持해주는 터전이 되는 곳이며, 庭은 萬物이 노니는 곳이다. 따라서 黃庭이라 함은 萬象이 變하고 化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인체에서 뿐만이 아니라 넓게는 이 宇宙의 變化象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 經의 첫 章인 <上清章>에서는 “上清紫霞虛皇前，太上大道玉宸君，閑居蕊宮作七言，散化五行變萬神，是爲黃庭曰內篇”이라 하여 《黃庭經》을 쓰는 이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上清紫霞’란 원래 道家의 三清中에 하나로 道家의 主宰者가 遨遊하는 곳으로 이는 性과 命이 나뉘어 지기 以前の 渾然한 듯이 비어 있는 太虛，或은 眞空을 말하는 것으로 이 곳에서 하나의 기틀이 發하여 性과 命으로 나뉘어 五行으로 化하고 다시 만가지 象으로 變하는 모습을 보고 기록하는 것이라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²⁰⁾.

12) 任法融：上揭書，p.21.

13) 任法融：上揭書，p.33.

14) 任法融：上揭書，p.45.

15) 任法融：上揭書，p.47.

16) 任法融：上揭書，pp.53~54.

17) 任法融：上揭書，pp.90~91.

18) 任法融：上揭書，pp.146~147.

19) 최창록：黃庭經研究，太學社，p.11.

20) 최창록：上揭書，p.76.

그리하여 <上有章>에서는 “上有魂靈下關元，左爲少陽右太陰，後有密戶前生門，出日入月呼吸存²¹⁾”이라 하여 萬象이 존재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니 위로는 元神의 腑인 魂靈이 있고 아래로는 그의 根本이 되는 關元이 있으며 左右로는 각각 少陽과 太陰이 있어 左旋而上升하고 右旋而下降하게 되므로 인체에서는 肝, 肺가 각각 左右升降의 기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變化의 用이 되고 뒤에는 密戶가 있고 앞에는 生門이 있어 앞뒤로 出入하는 門戶가 열리고 닫히는 것이다. 이리하여 前, 後, 左, 右, 上, 下의 六合이 있게 된 후에 日과 月이 뜨고 지는 것이 마치 인간에게 있어 呼吸과도 같아서 여가에서 變化의 妙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心神章>에서는 “六腑五臟神體精，皆在心內運天經，晝夜存之自長生。”이라 하여 인간의 五臟六腑의 모든 神과 精은 마음으로 하늘의 뜻에 따라야 만이 오래도록 生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性과 命이 合一하여 根源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說하고 있다²²⁾.

또한 性과 命을 닦아서 太虛의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若得章>에서는 “若得三宮存玄丹，太一流珠安崑崙。”이라 하고 <呼吸章>에서는 “呼吸元氣以求仙，仙公仙子已在前，朱雀吐縮白石源，結精育胞化生身，留胎止精可長生.....延我白首返孩嬰。”이라 하였다²⁴⁾.

뿐만 아니라 性과 命이 合一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이 宇宙와 하나가 되므로 障礙가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니 <高奔章>에서는 “口銜靈芝携五星，腰帶虎籙佩金鑄，篤欬接生宴東蒙”이라 하여 悠悠自適하는 眞人의 모습을 나타내었다²⁵⁾.

이처럼 <黃庭經>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天地自然 속에서의 變化象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5) <慧命經>에서 본 性과 命

慧命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몸 속 깊은 곳에

갈무리하고 있는 生命力 或은 精髓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元氣, 先天之氣, 佛性, 浩然之氣等等 많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사람이 태어나면서 性과 命이 나뉘어지므로 이 慧命이라는 이름도 숨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性과 命에 대하여 <道德經>이나 <黃庭經>의 내용을 考察해 보았으나 이 <慧命經>에 와서야 비로소 性과 命에 대한 概念과 修鍊方法이 具體化된다.

性과 命의 形象으로의 드러남은 인체에서 心과 神으로 표현될 수 있다.

醫學에서 心의 陰氣가 下降하여 腎의 陽氣와 합하는 것을 水升火降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物質적인 명칭일 따름이니 禪家나 道家에서는 心과 腎은 모두 性과 命을 갈무리하고 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寶積經>에서는 “和合凝集，決定成就²⁶⁾”라 하였고 <正道修鍊直論>에서는 “命者，根於腎，腎動卽水也。性者，根於心，心動卽火也²⁷⁾”라고 하였으니 心이란 것은 우리 인체의 불이면서도 그 안에 물 기운을 가지고 있어 아래에 있는 腎中の 불기운과 합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는 物質적인 에너지의 흐름일 뿐이나 그 속에는 性과 命이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인간은 다른 禽獸와 달리 思惟하고 말을 할 수 있는 萬物의 靈長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 안에 性과 命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性과 命을 닦지 않는다면 性의 變化인 神은 心에 감추어지고 두 눈에서 發하여 七竅로 빠져나가 나날이 消耗될 것이요, 命의 變化인 精은 腎에 감추어졌다가 涇根을 통해 밤에 고요할 때에 아래로 消耗될 것이다²⁸⁾.

이 책을 지은 柳華陽은 책의 始作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禪家의 口頭禪(性만을 追求함)과 道家의 內丹修鍊(命만을 追求함)의 病幣를 지적하고 兩者를 모두 닦아야만이 영원히 다함이 없는

21) 최창록 : 上揭書, p.89.

22) 최창록 : 上揭書, p.137.

23) 최창록 : 上揭書, p.189.

24) 최창록 : 上揭書, pp.196~199.

25) 최창록 : 上揭書, p.234.

26) 柳華陽 : 慧命經, 麗江出版社, p.269.

27) 柳華陽 : 上揭書, p.299.

28) 柳華陽 : 上揭書, p.53.

漏盡通에 이를 수 있고 그리해야만이 부처의 길에 들어갈 수 있음을 力說하고 있다. <漏盡圖>를 보면 “欲成漏盡金剛體，謹造烹蒸慧命根，靜照莫離歡喜地，時將眞我隱藏居.”라 하였는데 卽, 영원히 다함이 없는 漏盡의 金剛體를 이루고자 한다면 조심스럽게 慧命의 뿌리를 삼고 저서 조용히 歡喜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觀照하여 보면 참된 나의 모습이 그 곳에 숨어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⁹⁾. 이것이 바로 性과 命을 닦아서 그 根本자리로 돌아가는 참된 方法인 것이다. 그리하여 근본 자리로 돌아가서 性과 命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에 <虛空粉碎圖>에서 “一片光輝周法界，雙忘寂淨最靈虛，不生不滅，無去無來，虛空朗徹天心耀，慧歸禪定月輪孤，雲散碧空山色淨，海水澄清潭月浴.”이라 하였다³⁰⁾.

지금까지 性과 命에 관하여 《道德經》, 《黃庭經》, 《慧命經》에서 말하고 있는 內容을 考察해 보았는데 모두 性命은 둘이 아니고 性命을 닦아서 陰陽이 나뉘기 以前의 根本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天地의 造化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精과 神에 대한 概念

이 天地間에 存在하는 象은 너무도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곰곰히 살펴보면 하나의 眞理가 있어서 萬象이 따르고 있는 것이니 卽 天地間에는 日月과 地球가 있고 陰陽과 五行이 있어서 이것으로써 萬物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인 것이니 나라는 존재도 나를 이루고 있는 精과 神이 있기에 비로소 形을 이루고 살아가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를 둘러싼 이 宇宙의 精神이 있는 것이니 이 宇宙 精神은 日月으로써 代行하고 日月 精神은 水火를 變化시킴으로써 坎離運動을 하며 또한 萬物을 生하게 되는 것이다. 즉 太極에서 陰陽이 갈라져서 日月을 形成한 후에 日月은 차츰 자신의 運動인 一陰一陽 運動을 하기 시작한 것이

다. 이때부터 太陽은 地球에 熱을 퍼부었고 달은 이것을 冷却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地球에서는 冷熱의 二大作用이 交互運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陰陽의 交互作用이 反復하는 동안에 地球에서는 三陰三陽의 六氣가 作用한 것이니 이것이 風, 寒, 暑, 濕, 燥, 火인 것은 周知하는 바이다. 이처럼 宇宙의 精神은 無極에서 太極이 生하는 坤乾의 作用인 것이요, 여기에서 地球와 日月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³¹⁾.

精의 活動이란 萬物이 收藏에서 다시 發展할 수 있는 契機를 만드는 것이요, 神의 活動이란 萬物이 發展過程에서 다시 收藏할 수 있는 契機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宇宙가 陰陽運動을 시작하게 되면서 乾은 神을 生하고 坤은 精을 生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精神도 그 本質이 宇宙의 精神과 同一하므로 宇宙精神의 生成原理에 의해서 生成되는 것이다. 단 다른 점은 宇宙의 精神은 乾坤의 代行者인 日月의 精神, 즉 坎離精神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이다. 坎離精神은 太極이 運動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最初에 陰陽이 서로 分離하여 凝結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宇宙의 精神이 乾坤이라는 純陰純陽인 完成體에서 시작되었다면 日月의 精神, 卽 인간의 精神은 乾坤의 代行者인 坎離에 의해서 分合作用을 하므로 宇宙의 마음에 비해 不完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精神이란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니 《黃帝內經》의 《靈樞·本藏篇》에서는 “五臟者，所以藏精神血氣魂魄者也。六腑者，所以化水穀而行津液者也。”³²⁾라 하였고 《醫學入門·臟腑總論》에서는 “臟者藏平也，藏諸神而精氣流通也，腑者府庫也，出納傳輸之謂也。”³³⁾라 하였으니 六腑가 飲食物을 받아들여서 消化하고 排出하며 津液을 運搬하는 것은 모두 五臟의 精과 神을 온전히 保存하여 坎離의 分化된 상태에서 벗어나 無極의 乾坤精神으로 回歸하고자 하는 강한 意志인 것이

31) 韓東錫：宇宙變化의 原理，杏林出版社，p.239.

32) 河北醫療院：靈樞經校釋 下冊，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49.

33) 李挺：編註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1983.

29) 柳華陽：上揭書，p.9.

30) 柳華陽：上揭書，p.25.

니 옛 聖賢들께서 얼마나 精과 神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는지 알 수 있겠다.

1) 精의 作用

精이란 글자의 語源을 찾아보면 《說文解字》에서는 “擇米也，從米從青³⁴⁾”이라 하여 穀食 中의 고르고 고른 貴한 것으로 米의 四通八達하는 뜻과 靑의 근본 자리의 主宰者(主+丹), 즉 인체의 근본이 싹트는 자리의 主宰者라는 뜻을 取한 것이다. 《東醫寶鑑·精爲至寶》에서는 精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體內에서 가장 貴한 것이면서도 극히 적은 것으로 體내에서는 모두 一升六合밖에 없다고 하니 精이란 것의 所重함을 새삼 알 수가 있는 것이다³⁵⁾.

體內에서 貯藏하고 있는 精의 量에 대하여 《難經》에서는 “心，盛精汁三合，脾，有散膏半斤，膽，盛精汁三合”이라고 하였다³⁶⁾.

精에 대하여《黃帝內經》의 《靈樞·本神篇》에서는 “天之在我者德也，地之在我者氣也，德流氣薄而生子也，故生之來謂之精，兩精相薄謂之神...”이라 하였으니 이는 天地의 精과 神이 合하여 나라는 존재가 生하는 것이요, 이 生의 根源이 바로 精이라는 것이다³⁷⁾.

또한《靈樞·本神篇》에서는 “恐懼而不解即傷精，精傷即骨瘦痿厥，精時自下.”라고 하였고 “五臟主藏精者也，不可傷，傷即失洩而陰虛，陰虛即無氣，無氣即死矣.”라고 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심해지면 精을 傷하게 되어 精을 貯藏하고 있는 骨이 시큰해지고 야위게 되며 더 이상 精을 貯藏할 수가 없어서 精이 저절로 새어나오게 되는 것이니 그리하여 精이 점점 더 부족해지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³⁸⁾.

그렇다면 이러한 精의 作用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로 後代를 잇는 生殖能力으로서의 作用이

있다. 이는 人間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단순히 種族을 보존하는 問題外에도 자신이 이번 生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後代로 하여금 계승코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作用하는 것이니 넓게 생각한다면 《中庸》에서 말한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라는 말처럼 하늘에게서 부여받은 자신의 命을 다음 世代에서라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강한 의지가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이다.

둘째로 人間の 壽命을 延長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養生과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東醫寶鑑》의 <精爲至寶>에서는 “慾不絕即精耗，精耗即氣衰，氣衰即病至，病至即神痿，噫精之爲物，其人之至寶乎.”라 하여 精이 養生과 關聯이 있음을 말하였다³⁹⁾.

셋째로 思惟活動에 대한 神의 뿌리로서의 役割이다. 《靈樞·海論》에서는 “腦爲 髓之腑”라 하여 腦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 精中의 清者로 腦의 思惟機能에 精이 根幹이 됨을 說明하고 있다⁴⁰⁾.

2) 神의 作用

神이라는 글자의 語源을 살펴보면 《說文解字》에서 “神天神，引出萬物者也，從示從申⁴¹⁾”이라 하였으니 이 뜻은 神이라는 것은 곧 하늘의 神과相通하는 것으로 變하면 萬象이 되는 것이요, 化하면 一心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稟한 바를 棼고(申) 자유자재하는 모습을 보인다(示)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素問·五常政大論》에서는 “根于中者，命曰神機，神去即機息⁴²⁾”이라 하였고 《醫學入門》의 <運氣總論>에서는 “陰陽不測，謂之神...神在天爲風，在地爲木，在人爲怒，神在天爲熱，在地爲火，在人爲喜...”라 하여 神이란 自由自在하여 어리석은 인간은 그 모습을 알 수 없으나 天地에 존재하는 五行이나 六氣와 같은 象으로 그 모습을 推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⁴³⁾.

《黃帝內經》의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心者，君主之官，神明出焉⁴⁴⁾”이라 하여 心은 五臟六

34) 段玉裁：說文解字註，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1，p.33.

35) 許浚：東醫寶鑑 內景篇，大星文化社，p.109.

36) 素越人：難經譯釋，圖書出版 鼎談，p.149.

37) 河北醫療院：上揭書，p.174.

38) 河北醫療院：上揭書，p.182.

39) 許浚：上揭書，p.109.

40) 河北醫療院：上揭書，p.510.

41) 段玉裁：上揭書，p.3.

42) 河北醫療院：上揭書，p.354.

43) 李樞：上揭書，1983.

腑의 首臟이며 이것은 곧 心에서 出하는 神明이 五臟六腑를 主管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 《東醫寶鑑》의 <神爲一身之主>에서는 《萬病回春》의 내용을 引用하여 “心者，一身之主，清精之腑，外有胞絡，而羅之，其中精華之取聚萃，命之曰神...45)”이라 하여 《黃帝內經》에서言及한 內容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神의 작용에 문제가 생하면 곧 病이 發하는 것이니 《靈樞·本神篇》에서는 “心怵惕思慮即傷神，神傷即恐懼自失，破腠脫肉，毛悴色夭，死于冬.”이라 하여 神을 傷하게 되면 精神의인 문제만이 아니라 筋骨絡係에도 영향을 미치어 有形的인 損傷도 招來한다는 것이다46). 이러한 神의 作用을 綜合的으로 살펴보면 思惟意識 및 肢體活動이 모두 神이 人體에 발휘하는 各種 表現形式임을 알 수 있다. 《靈樞·本神篇》에는 精, 神, 魂, 魄, 意, 志, 思, 慮, 智에 이르는 一連의 精神活動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精, 神, 魂, 魄의 出入 往來를 綜合한 반응의 機로써의 心이 外部에 刺戟을 감수하고 意, 志, 思, 慮, 智의 思考過程을 거쳐 外界의 事物에 對處함을 記述한 것이다47).

3) 醫學에서 본 精과 神

精과 神에 대하여 歷代의 醫家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研究하였으며 精과 神의 人體 내에서의 역할을 매우 높이 認定하였다.

歷代 醫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書籍인 《黃帝內經》의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上古之人，其知道者，法于陰陽，化于術手，飲食有節，起居有常，不妄作勞，故有形與身俱，而終其千年，度百歲乃去.”라 하여 精과 神을 온전히 하는 것이 養生을 하는 지름길임을 말하였다48). 또한 明代의 醫家인 張景岳은 그의 저서 《景岳全書·傳忠錄》에서 “萬事不能外乎理，而醫之於理爲尤切。散之即理爲萬象，會之即理歸一心.”이라 하여 精과 神이 出한 根本 자리인 一心에서 萬象이 生하였으며 病을 치료하

는 것도 결국 그 原因인 근본자리를 찾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49). 그렇다면 精과 神이 어찌하여 養生을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黃帝內經》의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黃帝曰 夫自古通天者生之本，本于陰陽... 蒼天之氣，清淨即志意治，順之即陽氣固，雖有賊邪，不能害也，此因時之序。故聖人傳精神，服天氣，而通神明.”이라 하여 人간의 精과 神이라는 것도 人間을 둘러싼 天地의 精과 神을 벗어날 수는 없으며 또한 天地의 精과 神에 合致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분리된 精과 神을 하나로 合하여 神明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50). 그리하여 天地의 精과 神에 順從하는 사람들은 비록 病이 들더라도 藥이나 針, 石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治療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黃帝內經》의 《素問·移精變氣論》에서는 “黃帝問曰：余聞古之治病，唯其移精變氣，可祝由而已。... 岐伯對曰：往古人居禽獸之間，動作以避寒，陰居以避暑，內無權謀之累，外無身官之形，此恬淡之世，邪不能深入也。故毒藥不能治其內，針石不能治其外，故可移精祝由而已.”라고 하였다51). 이처럼 養生의 지름길인 人間의 精과 神도 결국에는 天과 地라는 限界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태어날 때부터 宿命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것은 坤乾의 純陰純陽의 完成體가 坎離의 陰陽動靜에 의해서 變化를 시작하게 되어 人間, 卽 萬象을 生하게 될 때부터 정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精과 神은 어떻게 하여 生하는 것이고 人體 내에서는 어떻게 作用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黃帝內經》의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味歸形，形歸氣，氣歸精，精歸化，精食氣，形食味，化生精，氣生形。味傷形，氣傷精，精化爲氣，氣傷于味52)”라 하였고 《素問·六節臟象論》에서는 “天食人以五氣，地食人以五味53)”라 하여 天의 木, 火, 土, 金, 水의 五氣와 地의 酸, 苦, 甘, 辛, 鹹의 五味가 合하여 形을 이루는 것이니 天地의 精과

44) 一中社：上揭書，p.49.

45) 許浚：上揭書，p.159.

46) 河北醫療院：上揭書，p.178.

47) 鞠淳鎬：東醫寶鑑의 精氣神에 대한 文獻的 考察，大田大學校 生理學教室，1998，p.17.

48) 一中社：上揭書，p.1.

49) 張介賓：新景岳全書，아울로스 出版社，p.3.

50) 一中社：上揭書，p.14.

51) 一中社：上揭書，p.70.

52) 一中社：上揭書，p.26.

53) 一中社：上揭書，p.54.

神이 습하여 분리되기 以前の 無極(化)에서 一陰과 一陽이 動하여 精과 氣가 生하며 여기에서 다시 有形인 形이 生하고 이 有形인 形이 있어야 味라는 變化가 生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無極인 太極이 動하여 萬象을 生하는 順法인 것이나 이렇게 하여 生한 인간은 당연히 逆法으로 化인 無極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宿命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運命에 대하여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人生于地，懸命于天，天地合氣，命之曰人”이라 한 것이나 天地에 대한 인간의 精과 神은 한치도 섬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⁵⁴⁾.

우리 주위에는 天地가 항상 있어 평상시에는 조금도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없지만 天地는 그의 代理者인 日月을 통해 우리의 精과 神이 항상 根本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나 《素問·八正神明論》에서는 “天溫日明，即人血淖液而衛氣浮，故血易瀉，氣易行；天寒日陰，即人血凝泣而衛氣沈。月始生，即血氣始精，衛氣始行；月郭滿，即血氣實，肌肉堅；月郭空，即肌肉減，經絡虛，衛氣去，形獨居⁵⁵⁾”라 하여 天地는 항상 日月로 代行하여 인간의 精과 神을 보호하려고 하나 인간은 그 때를 살피지 못하여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성내고 욕심내며 어리석은 짓을 行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것이다.

3. 性命과 精神

《詩經·大雅》에 “命之不易，無疆爾躬，上天之載，無聲無臭.”라는 말이 있다. 이는 天命은 지키기가 쉽지 않고 하늘이 하는 일은 비밀스러워 그 기쁨을 알기가 쉽지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性命을 닦기 위하여 《大學》에서는 “知止而後有定，定而後能靜，靜而後能安，安而後能慮，慮而後能得⁵⁷⁾.”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내려 준 性命을 조심히 닦는 方法이다.

이처럼 性命은 옛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닦기

어려운 것이니 왜 그런가 하면 形體도 없고 뜻도 없으며 말로 표현하면 이미 그 말이 性命의 뜻이 아니고 글로 표현해도 역시 이미 그 글이 性命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念慮하여 옛 사람들은 이 性命을 精神이라는 보다 物質的인 言語를 사용하여 주위 사람들을 이해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神은 神인데 神의 根源이라는 뜻에서 原神이라 하고 또한 元精이라 하며 先天之精 或은 先天之氣라고 하여 性과 命을 代身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性命과 精神이 다르다는 말은 아닌 것이니 性命이 곧 精神이요, 精神이 곧 性命인 것인데 모든 것은 자기 마음속의 本性을 찾는데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李挺先生이 先天圖를 그리시고 “試觀之，心，果有劃乎！果有爻乎！原理原氣混合無間而已。生天，生地，生人，生物，皆有此造化，以爲之主也⁵⁸⁾”라고 하셨으니 이는 理와 氣가 나뉘어지지 않은 때，則 性과 命이 습-된 그 자리를 알 때에만 天地萬物이 變化하는 理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醫學을 하는 자는 모름지기 外形과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理致를 窮究하는 것이 根本임을 밝히고 계신 것이다.

《太乙金花宗指》에서는 “空見爲空，空有未空，空忘其空，斯名眞空⁵⁹⁾”이라 하였는데 이는 空이라고 보임을 空이라고 보게 된다면 그 空은 空이 아니고 그 空을 空이라 보되 그 空도 잊어버려야 이것이 참된 空이라는 뜻이니 역시 《道德經》에서 말씀하신 “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李挺先生과 呂洞賓先生이 태어난 시기는 다르지만 그 깨달은 바는 같으니 性과 命에 대하여 옛 현인들이 기울였던 노력을 새삼 느낄 수 있다.

III. 結 論

54) 一中社：上揭書，p.133.

55) 一中社：上揭書，p.137.

56) 曹斗鉉：詩經，惠園出版社，p.327.

57) 明文堂：上揭書，p.32.

58) 李挺：上揭書，1980.

59) 呂洞賓：太乙金花宗指，麗江出版社，p.138.

性命과 精神은 東洋醫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精과 神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을 治療하는데 있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性命과 精神을 이해하기 위하여 醫家와 道家의 여러 書籍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精과 神은 東洋醫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黃帝內經》, 《難經》, 《醫學入門》, 《東醫寶鑑》 등에서 찾을 수 있다.
2. 인간을 治療하기 위하여는 먼저 精과 神에 대한 자세한 認識이 先行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3. 道家에서는 精神과 性命을 養生의 중요한 媒介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道家에서 궁극적인 목표인 太虛(無極)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認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性命과 精神이 비록 이름이 다르고 쓰는 사람은 다르지만 이는 體用과도 같은 것이어서 모두가 天地의 法則 속에서는 같은 의미로 옛 賢인들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王琦 外：素問今釋，貴州市，貴州人民出版社，1981.
2. 河北醫療院：靈樞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3. 秦越人：難經譯釋，서울，圖書出版 鼎談.
4. 許浚：東醫寶鑑，서울，大星文化社，1990.
5. 李挺：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1990.
6. 魏伯陽：參同契闡幽，서울，麗江出版社，1991.
7. 周易，서울，保景文化社，1984.
8. 東國大學校 原典研究會，明道易經.
9. 張介賓：新景岳全書，서울，아울로스출판사，1994.
10. 韓東錫：宇宙變化的 原理，서울，杏林出版社，1990.
11. 崔昌勳：黃庭經研究，서울，太學社，1998.
12. 任法融 註：道德經釋義，서울，麗江出版社，1999.
13. 柳華陽：慧命經，서울，麗江出版社，1991.
14. 呂洞貧：太乙金花宗指，서울，麗江出版社，1992.
15. 金剛般若波羅密經，서울，선문출판사，1989.
16. 金學主 譯：大學·中庸，서울，明文堂，1993.
17. 曹斗鉉 譯：詩經，서울，惠園出版社，1988.
18. 段玉裁：說文解字註，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1.
19. 鞠淳鎬：東醫寶鑑의 精氣神에 관한 文獻的 考察，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